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88. 짐승과 일곱 머리의 정체

2014. 09. 07.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7장의 붉은 빛 짐승의 실상을 알아가는 중에 시간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애청자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문인정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213-905-3641입니다.

[계17:9~11]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일곱 왕국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대목에서 시간에 쫓겨 오늘로 넘겼습니다. 일곱 산 곧 일곱 왕, 또 일곱 머리 또 많은 물로 표상된 이 일곱의 역사적인 정체는 무엇입니까?

답: 예,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개신교 학자들의 견해는 아까 말했지요. 우리교회의 전통적이고 다수가 지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사단의 일을 수행한 나라들이라고 그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것은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교권로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의 짐승의 일곱 머리가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머리 수였다는 것을 확인했고, 17장의 붉은 짐승이 동일한 조직이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거기에 전혀 속하지 않은 애굽과 아시리아를 포함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교회의 두 번째 견해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권로마, 여섯째는 머리에 상처받아 죽게 되었던 교권로마, 일곱째는 소생한 교권로마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역지로 일곱이라는 수를 맞춘 것 같지요. 이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권 로마가 세 머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권로마, 혁명기의 프랑스-즉 11장에 나타난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한 짐승이지요, 일곱째는 13장의 땅 짐승 즉 미국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도 단7장의 네 마리 짐승의 조합이 13장과 17장의 짐승이라고 확인된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와 미국은 그 일곱 머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에 근거해서 이 일곱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에 입각한 다른 설명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그렇지요.) 지금까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풀어 오신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하겠지만 얼마

나 동의를 받을지는 모르겠네요.

답: 다른 사람들의 동의여부는 다음 문제이고요, 그것이 성경적이면서 또 역사적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성경의 증거를 찾아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7장의 짐승과 13장의 짐승이 동일한 짐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의 기록들이 13장의 기록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이미 찾아보았지요. 다시 한 번 찾는다면,

[계17: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계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계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17: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계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

이 구절들은 13장의 짐승과 17장의 짐승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연결해주는 고리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보면 17장의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3.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그 일곱 왕국을 역사에서 확실히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목사님의 설명이 성경적이고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답: 예,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인데 헬라가 나중에 네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헬라는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네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헬라 전체이지요. 그 다음이 로마입니다. 그러면 일곱 머리 곧 일곱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닐는지요.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4. 설명을 들으니 아주 그럴듯합니다만 목사님 말씀대로 석연치는 않네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는 수에 들어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예, 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아무튼 이것을 해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3장과 17장의 짐승이 동일한 짐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한 상태와 역사적 사실에서 해결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떠나서 역사적 사건을 그냥 꺾어 맞추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절 내용과 관련해서 이해하면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5. 10절 내용이라면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

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읽고 이야기합시다.

[계17: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지난번에 말한 대로 다섯은 망했다고 한 그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하는 문제가 따르지요. 심판
을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의 시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많지요. 그때를 2300주야 끝이라고 보면 그때는 1844년이 된다는 것은 10장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요. 그때를 기준으로 보든지 요한이 계시를 보는 때를 기준으로 보든지 별로 달라
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요한이 계시를 볼 때를 기준으로 이 사건을 기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로부터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에게 말씀
하시기를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계1:19)고 하시지 않
았습니까. 그렇게 보는 저의 소견으로는 망한 다섯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헬
라, 그리고 셀루쿠스의 시리아, 프톨레미의 애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헬라가 네 나라
로 갈라졌지만 리시마쿠스의 나라나 카산데르의 나라는 얼마 못되어서 셀루쿠스에게 합병되었
습니다. 그러므로 수에 칠 가치가 없는 나라였고 나라를 계속 유지한 것은 셀루쿠스의 시리아
와 프톨레미의 애굽인데, 이 둘의 각축이 다니엘 11장 예언에서 초반부에 주축을 이루고 있습
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다 로마에게 망합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 대왕 생전에 통일 헬라와
다음으로는 셀루쿠스의 왕국과 프톨레미의 왕국이 왕국으로 기능을 했고 로마와 세력을 다투
었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의 헬라를 한 국가로 보는 것은 당연하고 다음으로는 시리아와
애굽이라고 말하지 그것을 헬라라고 하지 않지요. 요한 당시에 이 다섯이 망한 왕국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고 한 나라가 바로 제국로마입니다. 다음 나라에 대하여서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일곱 번째
나라 교권로마이지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작은 뿔로 묘사된 그 세력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데
살로니가 후서 2:3~8에서 말했습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살후2:3~8]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
컸는 하나님이나 송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
나님이라 하느니라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
하느냐 6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7 불
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8 그 때
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
으로 폐하시리라.

이 말씀에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멸망의 아들은 저의 때에 나타날 것인
데 그때가 될 때까지 막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막는 자는 제국로마입니다. 제국로마가
있을 동안에 아직 이 멸망의 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기록과 17:10의 기록은 완전히 일
치합니다.

6. 아주 가능성이 있는 견해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올 짐승도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의 일곱 머리에는 교권로마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답: 예, 아주 예리하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지적하셨군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에 이것도 포함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성경적 입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해결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지적한대로 분명히 교권로마는 다니엘서 7장에서 일곱 머리중 하나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계13장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나았다고 했지요. 거기서 교권로마를 분명히 머리 중에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얹은 산이 일곱 머리이고 일곱 왕이고 많은 물입니다. 그것을 다 통합해서 붉은 빛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교권로마를 13장의 기록에 의하여 머리 중 하나로 보는 것은 계시록 기록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13장의 짐승 자체, 또 17장의 짐승과 여자 자체가 교권로마입니다. 그런데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위에 열거한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다 동일한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 형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바벨론이다 페르시아다 헬라다 로마다 해도 다 붉은 용이 그것들을 주관하고 지배하며 그 용의 정신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백성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온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를 따라 위에서 지목한 그런 나라들로 활동한 것이지요.

7.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연구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을 내고 다른 내용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하지요. 목사님은 저의 설명이 썩 마음에 들지 않나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것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 전통 견해가 합리성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확연한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 상당히 성경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교권로마를 머리 중 하나로 보는 것에 대하여서 좀 생각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각해보시고 좋은 답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아닙니다. 다른 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목사님의 설명이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는 가장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답: 감사합니다. 그런데 8절에 붉은 빛 짐승 자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이 짐승 자체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는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덟째 왕을 머리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덟째 왕이라고만 했는데, 그 표현은 8절의 붉은 빛 짐승에 대한 표현과 같습니다. 10절에서는 머리가 아니고 여덟째 왕이라고만 했는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일곱은 머리의 수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짐승 자체를 여덟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차 나올 왕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지요. 그것이 10절에서는 일곱째 머리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17:3에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즉 짐승 자체가 참람된 이름 그 자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로 표상된 왕국들은 이 참람된 짐승이 역사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활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나라들이 망했지만 그 정신은 계속적으로 다음 나라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실제 정체는 바로 붉은 용이라는 것, 곧 루시퍼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천년기 후에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 활동할 것인데, 계속 모습을 바꾸어서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권세들을 동원한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교묘하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형태로 활동한다는 것을 아주 속 시원하게 계시해준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한 표현 때문에 어떤 분은 11장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된 혁명기의 프랑스로 해석하는 것이지만, 무저갱은 루시퍼가 열쇠를 맡아 있는 곳이잖아요. 다섯째 나팔에서 공부했습니다. 루시퍼는 계속 무저갱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수행하도록 자기의 수하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어보내는 그의 수하가 다섯째 나팔에서는 황충이고, 11장에서는 혁명기의 프랑스로, 17장에서는 교권로마인데 그것들을 내어보낸 장본인이 루시퍼라는 것을 드러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깨달으면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8. 목사님, 복잡하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10절과 11절을 다시 읽고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 좋습니다.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계17:10,11]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망한 다섯은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헬라, 셀루쿠스의 시리아, 프톨레미의 애굽이고, 시방 있는 것은 제국로마이고,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은 교권로마입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입니다. 없어진 머리가 아니고 짐승이라고 기록한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여덟째로 표현되었는가 하면 8절과 11절을 잘 살펴보면 대답이 있습니다. 8절에서 짐승을 묘사한 표현이 11절에는 여덟째 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짐승에게 달린 것인데, 여덟째는 그 짐승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에다가 그 머리를 달고 있는 짐승까지 보태면 모두 여덟이 된다는 말입니다. 8절에 짐승을 묘사한 것과 11절에 여덟째 왕을 묘사한 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적입니다. 11절에 짐승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8절이나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번역된 말은 설명을 곁들인 번역으로 보입니다. 원문은 그냥 “엔, 옥크 에스틴, 멜레이 아나바이네인”입니다. 엔은 있었다. 영어로는 그냥 was로 번역했지요. **옥크 에스틴**은 “없으며”입니다. 영어로는 is not입니다. **멜레이**는 “하려고 한다.”는 말인데 영어는 shall로 번역했습니다. **아나바이네인**은 올라올 것이라라는 말입니다. ascend로 번역했지요. 엔은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과거에 해당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었으나”라고 번역했는데, 제 생각은 전에라는 말을 더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 말을 보태어 번역했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헬라어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무지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웃을는지 모르지만, 원문 그대로 있었고, 없고, 올라오려고 한다. 라고 번역해야 이 문장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9. 한국어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했고, 영어도 was라고 하면 있었다니까 과거에 있었다는 뜻이 되는데 전에 있었다고 번역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답: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일곱 머리의 정체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덟째가 있었고, 없고, 올라올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에 있었을 때가 언제인가 그 시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확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시방은 없다고 했으니 그것이 없는 시방은 언제인가라고 시점을 찾지요. 그러나 10절을 보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는 아직, 곧 요한이 계시를 보는 그 시점에서 이르지 않았는데 미래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미래에 이르게 될 일곱째가 있었다가 없고 올라올 존재가 아닙니까. 이것은 이 일곱째 머리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지, 그것이 있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일곱째는 올라오면 있었다가 없다가 다시 있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올라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올라오면 그것은 있었다가 없다가 또 있게 될 것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저로서는 어쩔 수 없지요. 아까 살후 2:3~9 말씀으로 이것이 올라올 때가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막는 것이 끝나면 자기 때에 올라올 것이라고 했지요. 그 막는 자가 제국로마인데 17장10에서 하나는 있고 에 해당되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일곱째가 올라올 것이고 그것은 올라온 후에 있었다가 없다가 또 올라오는 그런 존재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전에, 시방, 장차라는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본문을 올바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말로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는 구절은 “시방 없어진 짐승”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고 “있었다가 없다가 하는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라고 번역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애청자들이 엄청 헛갈릴 것 같은데, CD를 구해서 여러 번 들어보시면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목사님, 있었다가 없다가 있게 될 것이라는 짐승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그 일곱째 머리는 요한이 계시를 볼 당시에는 없었는데, 요한이 계시를 볼 당시에 있는 나라가 망하면 나타날 것이지만 그것의 상태는 나타난 후에 즉 있었다가 없다가 또 있게 될 나라인데 교권로마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단정했군요. 그런데 있었다가 없다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예,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살후 2:3~9에서도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멸망은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짐승은 활동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장면을 그냥 지날 뻔 했군요. 그것은 이 짐승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미 계13장에서 한 번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그것이 없게 된 사건입니다. 이 교권국이 1798년에 베르디에 장군에게 그 수장인 교황이 잡

혀서 죽었고 나폴레옹은 이 자리가 다시는 계승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었지요. 이것이 “없다”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있게 되었고 그 후로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따르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었다가 없다가 다시 있게 될 때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이상히 여겨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의 상태가 그렇게 지속될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최종적 사건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11.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음 구절을 살펴도 되겠습니다. 여덟째 왕으로 표현된 짐승 자체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겠는데, 열 뿔은 또 무엇입니까?

답: 12,13절이지요. 말씀을 읽은 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계17:12,13]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13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구절도 어렵습니다. 열 뿔은 열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뿔들에는 면류관(왕관)이 없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볼 때를 기점으로 이 뿔들은 아직 왕국이 되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이 계시를 볼 때의 상태인지, 아니면 이 짐승이 심판을 받는 시점의 상태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실은 17장이 일곱 재앙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중심에 있는 세력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재림과 심판에 대한 종합적이고 함축적인 사실을 기록한 후에 14:17절부터 기록된 심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16장~19장까지입니다. 그러므로 17장의 붉은 빛 짐승이나 일곱 머리나 열 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들어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0뿔도 그 대상입니다. 그것들은 13장에서는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왕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나라들인데 왕관을 벗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깨달도록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지요. 시간이 되었지요?

12. 예, 그러네요. 다음에 계속하기로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이만큼 살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